

8. 인 주 면

[77] 게 바 위

인주면 신성리에 어머니만을 모시고 외롭게 살고 있는 어린 딸이 있었다.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어찌나 효성이 지극하였는지 그 마을에서 칭찬이 자자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몹쓸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자 혼자 남은 어린 딸은 그 힘든 일을 도맡아서 해나가며 어머니를 정성껏 간호하였다. 그러나 별 차도가 없자 동네 아주머니가 가르쳐 주신대로 생선을 고아 드리기도 하고 쑥으로 찜질을 하기도 하였으나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 갔다. 보다 못한 어린 딸은 어느 산골 암자에 산다는 스님을 찾아가 어머니를 살릴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 그 아이의 처지에 의원을 부를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스님은 어린 소녀의 간절한 애원을 차마 물리쳐 버릴 수가 없어서 위험하기는 하지만 방법을 일러 주었다. 어머니의 병은 바닷가에 사는 흰색의 게를 잡아다가 꼭 고아서 그 물을 마시게 하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흰 게는 물위에 오르는 것이 일년에 두 번인데 날짜도 부정확하고 발견한다 손치더라도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방법이라도 있다는 사실이 그 소녀는 얼마나 기뻐는지 몰랐다. 그래서 흰 게가 산다는 바닷가로 갔다. 마침 겨울철이라 불어오는 바람은 살을 에이는 듯하고 눈발이 마구 흩날리는데 그 아이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추웠다. 그러나 오직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바위틈에 쪼그리고 앉아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게를 기다렸다. 기다린 보람이 있었는지 드디어 흰게가 나타나 주었다.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지만, 그 큰 몸집과 반짝이는 흰 빛이 눈이 부셔서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추위에 시달린 탓인지 움직일 수가 없었다. 눈앞에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약이 있는데도 잡지 못하다니 그 소녀는 너무도 다급한 마음에 일어나다가 그만 넘어진 채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그 소녀도 차츰 게 모양의 바위로 변해갔다. 어머니의 병을 끝내 고쳐 드리지 못한 한으로 게 모양의 바위가 되어 언제나 슬퍼하며 달이 없는 밤이면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난다고 한다.

요즈음 세상에도 부모를 위해 그만큼의 정성을 쏟을 자식이 과연 몇이나 될까? 진정한 의미의 효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쯤 생각해 보직하다.

[78] 말 달리던 터

인주면 가난한 한 선비가 궁색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가난하여 부인도 얻지 못하고 혼자 글이나 읽으며 시장기는 물로 채우고 날을 보냈다. 그런 어느날 시장 구경을 하다가 금붕어를 팔러 다니는 사람을 보았다. 그런데 그 통속에 검은 빛을 띤 놉이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안됐다는 생각이 들어 그 붕어를 얻는 처지에 사고 말았다. 그리고는 연못에 놓아준 후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밤 누가 부르는 소리에 잠이 깬 선비가 방문을 열어 보았더니 어느 아리따운 처녀가 반짝이는 검은 옷을 입고 절을 하는 것이었다. 영문을 몰라하는 선비에게 그 처녀는 자기는 원래 용궁에 살았는데 육지 구경이 하고 싶어 나왔다가 그물에 걸리어 이런 신세가 됐다고 설명하였다. 그래서 밤이면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는데 일평생 육지에 사는 한 남자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만 있다면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선비는 그 처녀를 아내로 맞았다. 어찌나 부지런한지 생활은 궁핍하지 않았고 행복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장수가 살았는데 지나는 길에 본 선비의 아내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 선비놈을 없애고 자기가 그 부인을 차지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런 결론을 내린 장수는 선비에게 내기를 걸었는데 세판 중에 먼저 두판을 이기는 자가 아내를 차지하기로 하였다. 선비는 어이가 없었지만 포악한 성질이 무서워 응하고 말았다. 첫 번째로는 활쏘기를 하였다. 수십 미터 밖에서 과녁을 맞히는 일이었다. 장수는 쉽게 맞힐 수 있었으나, 이제까지 글만 읽으며 활이라고는 잡아본 일조차 없는 선비로써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기는 장수가 쉽게 이겼다. 두 번째는 시를 지어 승부를 내었는데 그것은 글만 대해온 선비가 이길 수 있었다.

그러자 약이 오른 장수는 세 번째만은 가장 어려운 성 쌀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마름= 달려 경주를 하자라는 것이었다. 걱정이 태산같은 선비는 식음을 전폐하고 아내를 빼앗길 생각을 하니 분하기 짝이 없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아내는 용궁에 가서 용황으로부터 비루먹

은 말 한 마리와 작은 주머니를 가져와서 남편에게 내어주며 이것만 가지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자신을 가진 선비는 성을 쌓기 시작하였다. 작은 주머니를 풀어놓자 그 속에서는 작으면서도 힘이 센 난쟁이들이 수 없이 쏟아져 나와 순식간에 성을 쌓았다. 그리고 그 비루먹은 말을 타고 달리기 시작했는데 그 속력이 눈에 보이지 않을만큼 빨라서 구경하던 사람은 물론 장수까지도 무척 놀랐다. 그래서 마침내 경주에 이긴 선비는 착하고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하고 서울 쌓은 자리로부터 말이 달리던 자리를 "말달리던 터"라 하여 인주면 신성리 당지산 꼭대기에 아직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

[79] 지므레

인주면에 김씨들만이 모여사는 마을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김안서라는 선비는 홀어머니와 살고 있었는데 양반이면서도 집이 넉넉하지 못하여 가난한 집안의 처녀를 아내로 맞았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어찌나 극성스러운지 며느리를 자기의 외아들을 빼앗아간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학대하였다. 마침내는 남편과 각방을 쓰게 했으며 과거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남편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트집을 잡아 꾸중을 일삼았으며 숨돌릴 틈도 없이 일을 해야 했다.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가 밍기보다 몹시 서운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뒷산마루에 물 한그릇을 떠놓고 신령에게 빌기 시작했다. 그런 어느날 빌기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하얀 수영의 할아버지가 나타나 하는 말씀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한다면 일년내내 시어머니와 따로 떨어져 살 수 있을 것이라 했다. 귀가 솔깃해 진 며느리는 방법을 물었다. 그 방법이란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에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주는 이 가루를 넣어 주기를 일년을 하면 시어머니는 돌아가실 것이라 했다. 너무도 엄청난 사실에 가슴이 뜨끔했지만 더 이상 시어머니의 학대를 받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수정과에 그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가루를 섞어 하루에 한 번씩 정성으로 드렸다. 처음에는 미웍게만 보던 시어머니는 날이 가면서 며느리의 정성에 감복하여 며느리의 정성에 감복하여 며느리를 사랑하게 되었고 날로 건강해지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자기의 거짓 정성으로 인자한 시어머니로 변해가는 것을 보고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살려야 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할아버지를 찾아가 시어머니를 살려 달라고 애원했다. 그러자 슬며시 미소를 띄운 할아버지는 사실은 그 가루가 산삼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며느리의 놀라움과 기쁨은 너무도 커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정말로 잘 모시려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즈음에 과거에 합격하여 돌아온 남편은 고부간의 사이가 좋아진 것을 기뻐하고 시어머니는 항상 며느리를 위하는 마음을 가져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 한다. 그래서 며느리가 할아버지를 만났던 그 자리에는 (갈산리와 명암리 경계) 바위가 생겼는데 그 바위의 정기로 또 그 며느리의 행실을 볼받아 열녀 효부가 많이 났으므로 김호레(金好례)라 하던 것이 "지므레"라 불렀다 한다.

이 전설은 노인공경사상이 땅바닥에 떨어진 현대 사회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영겁의 세계에서 보면 한 인간의 일생이란 것은 극히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그 순간을 굳이 서로를 미워하며 살 필요가 있는 것일까? 사랑은 상대적인 것이다.

우리 모두는 노인 모시기를 싫어하는 풍조를 타파하고 사회의 고루한 사상을 새롭게 개혁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80] 한 절 불

인주면 해암리에 한절골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옛날에 절터였던 자리가 있다. 절도 크고 넓어서 그 절을 한절이라 한 것 같다. 절이 크니 만치 스님들이 많아서 마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타지에 있는 사람들까지 소원을 빌기 위해 많이 몰려 들었다.

하루는 아기를 못 낳은 어느 젊은 부부가 와서 주지스님 앞에서 합장을 하고 아이를 꼭 하나 갖게 해 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이었다. 스님은 아기를 갖는 것이 어렵지 않으나 그 정

성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 후로 부부는 날마다 불공을 드리고 온 정성을 The아서 드디어 3년뒤에 아기를 갖게 되어 부부에게는 암흑세계에 불빛이 비친 것처럼 기뻐다. 아내는 훌륭한 아들을 낳고 싶어서 태교에 좋다는 것을 모두 했으며 아기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다. 그 후 소원대로 아들을 낳았는데 곧이어 아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남편은 좋다는 의원은 다 데려 오고 모든 약을 써 봤지만 부인의 병은 더해만 갔다. 할 수 없이 또 스님에게로 찾아가 또 한번의 소원을 들어 달라고 애원하니 아기를 낳게 한 소원의 결과로 된 일이라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남편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것 같았다.

정신을 차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내는 이미 싸늘한 몸이 된채 그 옆에는 갓난아기가 뺨끈뺨끈 잠을 자고 있었다. 아내의 얼굴과 아기의 얼굴은 마치 대조되어 있는 것 같아서 더욱더 슬퍼만 갔다.

아내의 상을 치르고 난 뒤 남편은 아기에게 젖을 얻어 먹이려고 이집저집 돌아 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온 정성을 다해 키워서 아이는 여덟살이 되었는데 명석하고 영리하여 공부도 잘하는 데다가 풍채도 우람해서 마치 장군처럼 커갔다. 그런데 아기를 잘 자라는데 아버지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결국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말았다. 아이는 여덟살에 부모를 다 잃은 고아가 되었다. 아이는 여기저기 돌아다녔지만 너무 어리다고 일을 시켜 주시를 알아 스님의 도움으로 그를 낳게 해 준 한 절로 들어가게 되었다.

주지 스님은 그 아이에게 너는 너의 부모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것이니 훌륭하게 자라야 한다고 충고도 해주면서 불법등 모든 면에 걸쳐서 가르쳐 주셨다.

아이는 주지스님의 가르침 아래 모든 것을 익히면서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 갔다. 자라는 중에 몇 년 전에 자기에게 말해준 부모님의 생명을 이어 받았다는 말을 되새기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곰곰히 생각했다.

생각 끝에 큰 미륵불을 세워 부모님의 명복을 빌기로 했다.

마침내 긴 세월을 걸쳐 높이 2m 15cm, 폭 55cm의 훌륭한 미륵이 완성되었다. 그 후 어느 난리에 한 절은 불에 타 없어지고 미륵만이 남아 한절불에 대한 옛 이야기를 전해 주고 있다.

지금도 정월달 날을 정하여 동민이 제를 올리고 있다고 한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식이 부모에 대한 생각이 부모가 자식에 대한 생각에 까마득히 못 미침을 깨닫고 부모님의 자식들에 대한 사랑에 한없는 감사와 효도의 의미를 다시 음미해 본다. 자신의 몸까지 희생하면서 자식들을 키우시는 모든 부모님들 한절불이 말해주는 짜릿한 그 음성, 나의 머리를 떠날 줄 모른다.

[81] 형 제 송

인주면 해암리 뒷산에 늙고 오래된 약간 굴기에 흠집이 있는 두그루의 형제 소나무가 있다. 인주면의 높은 산위에 있는 이 형제 소나무의 전설을 옮겨 보겠다.

지금으로부터 400여년전 평화롭던 조선땅에 왜적이 침입해 왔다. 준비가 없었던 조선을 왜적은 잘도 진격해 왔다. 그 동네에도 왜군이 쳐들어 온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때 그 동네에 이름은 전해지지 않는 두 젊은 형제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맹세하고 동네 뒷산으로 다른 청년들과 의병이 되어 올라갔다. 수많은 왜군이 몰려와 그들은 열심히 싸워쓰나 워낙 많은 숫자의 적에겐 전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싸움이 끝나고 동네 사람들은 모든 시체를 그 자리에 묻어줬다. 그런데 그 이듬해 뿌리는 하나인데 가지는 분명히 두 그루인 소나무가 그 형제 무덤에서 자랐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형제의 넋이 분신한 것이라 생각하여 그때부터 형제 소나무라 불렀다. 그리고 어떤 나무꾼 이 그 나무에 도끼를 대었더니 붉은 피가 줄줄 흘렀다는 설도 있다.

죽어서까지 마을을 지켜보고 이 땅을 지켜보는 그 형제송이 고맙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두 형제의 넋을 생각하며 과연 나는 이런일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